

## 일반논문

# 에너지전환운동 과정에서의 생태시민성 학습 서울시 관악구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Learning of Ecological Citizenship through the Process  
of Energy Transition Movements: Based on a Qualitative Case Study  
on an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in Gwanak-gu, Seoul

조미성\*\*·윤순진\*\*\*

에너지자립마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지역적 대응이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도와 참여가 핵심적인 성패 요소다. 이 연구는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에 참여하는 동기가 무엇이며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겪는지 살펴보고, 이를 생태시민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관악구에서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을 하는 소모임 구성원들에 대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위주로 하면서 문헌 조사를 병행하며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초기에는 사회적 관계망이나 재미에 이끌려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점차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며 생태시민성을 함양해갔다. 이들이 시민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전통적인 학습보다는 참여와 실천을 통한 사회적 학습의 양상을 보였다. 또한 구성원 각자의 생태시민성은 부족해 보였으나, 집단적으로 하는 활동은 생태시민들의 모습을 띠었다. 이러한 양상은 생태시민성을 개인 차원의 접근에 머무르기보다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과정적이고 학습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은 교육 수준이나 환경의식이 평범한 성인들로서 이들의 변화에 대한 이 연구 결과는 에너지전환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 이 글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NRF-2014S1A3A20443 81)로, 윤순진의 지도를 받아 조미성이 작성한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발전시킨 것임.

\*\* 제1저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대학원 환경교육협동과정 박사과정.  
(jomiso@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겸무연구원, 서울대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AIEES) 겸무연구원(ecodemo@snu.ac.kr).

있는 전략적 기초가 될 수 있다.

주요어: 생태시민성, 에너지 전환, 에너지자립마을, 절전소 운동, 사회적 학습, 실천공동체

## 1. 들어가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지역적 대응으로 최근 에너지자립마을이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이나 전환마을(transition town)은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중앙집중식 에너지 체제에 균열을 가하며 에너지전환을 위한 ‘틈새(niche)’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박종문·윤순진, 2016; 윤순진·심혜영, 2015). 이러한 에너지자립마을이나 전환마을이 탄생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렇기에 변화를 도모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학습하며 성장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에너지자립마을의 성장과 확산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자립마을을 비롯해 에너지전환운동을 추진하는 조직들에서 참여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을 견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기후변화 교육이 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변화를 주도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전환마을에 대한 연구와 한국의 에너지자립마을 연구에서는 세상이 당장 망할 것같이 위협하는 종말론적인 기후변화 교육으로 인해 주민들이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언급했다(Seyfang & Haxeltine, 2012; 박종문, 2015). 이렇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나 무기력감을 Sobel(2007)은 ‘생태공포증(ecophobia)’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기후변화와 같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엄청난 일들에 대해 무기력함, 무관심, 피로감, 혼란, 공포감을 겪는데(Clover, 2002; Giddens, 2009), 이 또한 생태공포증의 일종이다. 두려움이나 무기력함은 자발성이나 주도성과 양립하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운동을 이끌어내기도 어렵다.

기후변화 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환경교육가들은 “지나친 위기감을 조성하는 대신”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면서 “가능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학습과정을 증진”할 것을 제안한다(김찬국·최도형, 2010: 8~11).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지역 공동체에서 창조적으로 자신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킨 에너지자립마을 활동가들의 사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관악에코마을이라는 에너지자립마을을 이끌어가는 소모임 구성원들이 생태공포증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즐겁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연구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동기로 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에 요구되는 ‘생태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했다. 생태시민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떠오르는 이론틀로서 한국에서도 환경사회학과 환경교육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생태시민성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크게 이론에 대한 소개, 이미 제시된 이론틀로 경험적 사례 해석, 이미 그러한 시민성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연구로 구분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경험적 사례 분석을 통해 이론적 틀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론적 논의를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을 과연 생태시민이라는 이론적 틀로 포괄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고, 결론적으로 실제 경험적 사례가 생태시민성이라

는 이론적 개념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하는지 논의하고자 했다.

## 2. 이론적 배경

### 1) 에너지 전환과 전환마을 운동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에 대한 대응으로서 에너지 전환은 1970년대부터 언급되었다. Lovins(1977)는 원자력 발전과 화석연료에 기초한 대규모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 체제를 경성에너지 경로(hard energy path),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적 에너지 공급 체제를 연성에너지 경로(soft energy path)라고 구분하며, 미래의 에너지 체제는 연성 에너지 경로로 가야 한다고 주창했다.<sup>1)</sup> 이러한 논의와 함께 사회기술체제로서의 에너지체제라는 개념이 확산되면서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면서 중앙집중적 속성을 보이는 경성에너지 체제와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을 통해 수요관리로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기초로 분산적인 속성을 보이는 연성에너지 체제를 대비함으로써 경성에너지 체제에서 연성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왔다.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는 기후변화를 촉진해 생태적 대재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체제는 그 자체가 기술적으로도 위험하고, 사회적으로도 대다수 시민이 에너지 권력에 종속되므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이필렬, 2003).

연성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윤순진, 2002). 연성에너지 체제로의 이행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그 변화가 쉽지는 않다. 사회기술체제는 한번 성숙되면 관성(momentum)을

1) Lovins(1977)는 ‘경로’란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하나의 경로를 택하면 다른 경로를 택할 수 없다는, 상호 배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획득하게 되고, 그 관성으로 인해 더욱 공고해지며 그 체제를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윤순진 등, 2011). 관성은 시설물의 수명이 길고 기존 에너지체제를 통해 생계를 영위하며 대다수 시민이 그러한 체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가? 이 공고해진 체제 내에서도 간혹 틈이 생긴다.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못하거나 체제의 유지에 장애가 되는 결정적인 문제인 역돌출부(reverse salients)가 발생하기 때문이다(Hughes, 1987; 윤순진 등, 2011). 이와 유사하게 Geels(2012)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틈새(strategic niche)’의 역할에 주목했다.<sup>2)</sup> 전략적 틈새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견고한 관성을 뚫는 변화와 혁신의 장이 된다. 에너지 전환 운동이 일어나는 전략적인 틈새 현장이 바로 전환마을과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박종문·윤순진, 2016). 전환마을은 2005년 Hopkins와 학생들의 프로젝트로 시작했고 전환마을네트워크를 통해 단기간에 전 세계로 퍼져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sup>3)</sup> Hopkins(2008)는 전환마을 운동을 ‘석유 정점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행복을 재건하려는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정의했다.

전환마을 운동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과 핵심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eyfang(2009)은 74개 전환 마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영국 전환마을 운동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했다. Hopkins(2010)는 회복탄력성과 재지역화(relocalisation)에 주목해 토트네스 전환마을 운동을 연구했다. 그런가 하면, Walker 등(2010)은 지역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의 결정

2) ‘Niche’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니치’로 쓰는 경우가 있고(박진희, 2009), ‘틈새’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윤순진·심혜영, 2015). ‘Niche’는 생태학에서는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 또는 ‘적소’ 등의 의미로 쓰이지만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적소’로 번역하거나 ‘틈새’로 번역하는 것 모두 의미상으로 완벽하게 상응한다고 볼 수는 없다. 더 적절한 용어가 아직은 없고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처음 이 용어를 번역한 윤순진·심혜영(2015)의 선례에 따라 여기서는 틈새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3) 전환 네트워크 홈페이지. [www.transitionnetwork.org](http://www.transitionnetwork.org)

적인 요인으로서 ‘신퇴’에 주목했다. Seyfang과 Haxeltine(2012)은 대안을 향한 틈새 공간에서 어떻게 체제(regime)의 전환이 일어나는지, 성공적으로 틈새가 된 곳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했다. 또한 전환마을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Hopkins의 전환마을 설립의 12단계 틀에 비추어 호주의 한 전환마을을 연구한 결과물도 있다(Bay, 2013). 그러나 이들 연구들 중에 주민들의 변화나 학습과정을 미시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은 없었다.

한국에도 전환마을 운동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마을이 등장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반핵운동은 에너지 대안운동으로 전환되며, 핵발전의 대안으로 에너지 절약, 효율,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민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구도완, 2012). 조직적으로는 에너지자립마을과 절전소 운동, 시민들이 주도하는 태양광발전소 설립,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동 같은 에너지 전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주민출자로 햇빛 발전소를 세우고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부안 등용마을을 시작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은 통영 연대도, 원주, 순천, 임실 중금마을, 산청 갈전 마을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이유진, 2014). 이 에너지자립마을들의 에너지 전환은 지방정부가 주도했다기보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인식을 가진 마을 구성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이유진, 2014). 그런가 하면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선정하고 3년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민관협력형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2014년에는 성대골, 새재미, 십자성, 돌을별, 성미산, 삼각산 마을 등 총 15개 에너지 자립마을이 운영되었고, 2015년에는 35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2016년에도 24개 신규 마을을 포함해 총 55개의 에너지자립마을이 활동하고 있다.<sup>4)</sup>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들의 주된 활동 중 하나는 절전소(Negawatt

4)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 “다섯 살 된 에너지 자립마을, 55개소로 확대한다.” <http://energy.seoul.go.kr/>

Plant) 운동이다. ‘네가와트(Negawatt)’라는 용어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절전소 운동은 효율성을 향상시키거나 소비를 줄임으로써 절약되는 단위 전력을 가리키며(Lovins, 1990), ‘절약이 곧 생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 사용의 절대량을 감소시키면서 더 적은 에너지 소비로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역분권적인 에너지 체제에도 부합한다(윤순진, 2003). 그래서 절전소 운동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은 발전소의 건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변화’로 돌리게 한다.

전환마을이나 에너지자립마을 운동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주민참여의 정도와 방식이다(윤순진·이유진, 2008; 이유진, 2010, 2014).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와 제도적인 접근도 필요하나,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센티브나 규제와 같은 외부적 동기는 그 동기가 사라지거나 인센티브가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연구도 있다(Steg et al., 2015). 평범한 사람들을 동기화시킬 만한 법적, 경제적 수단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환경적 덕성에 의해서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Connelly et al., 2006). 또한 인센티브와 규제를 통해서만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그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제한하면서 원인이 되는 사회구조를 정당화시킬 것이다(박순열, 2010a).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과 일상 생활에서 영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외부적 동기보다 내면적 동기가 훨씬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점차 축적되고 있다. 주민주도형 자립마을들에서 주민들의 자발성과 만족도가 정부주도형 마을보다 높다는 것을 ‘사회적 자본’의 틀로 확인한 연구(이유진·진상현, 2015)도 있고, 서울시 동작구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운동을 사례로 분석해서 주민들이 에너지전환운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에너지시민성의 수준과 내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박종문·윤순진, 2016)도 있

다. 박종문과 윤순진(2016)의 연구에서는 특히 전환운동 참여도가 높은 핵심 주민들의 경우, 개인 수준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교육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이들이 참여하게 되는 주요한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종문과 윤순진(2016)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벗어나 어떤 다른 방식의 교육이 효과적인지는 구체적으로 살펴 보지 않았다. 이 연구는 지식과 정보전달식 교육이 가지는 한계와 부작용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관악구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통해 실제 맥락 안에서 사회적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깊이 있게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의 연구들을 발판으로 해 관악구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적 학습을 통해 생태시민성이 함양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도록 한다.

## 2) 생태시민성과 생태시민

Dobson(2003)은 시민성의 영역을 ‘생태적’이라는 새로운 틀로 보고 책임감을 강조한 생태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을 주장했다.<sup>5)</sup> 그는 환경시민성(environmental citizenship)과 생태시민성을 구분했는데, 전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시민성의 개념에 환경적 권리만을 추가하는 데 반해, 후자는 시민성을 새로운 덕성의 관점으로 보았다. 그는 특히 ‘정의(justice)’를 핵심 개념으로 취함으로써 전통적 시민성의 범주를 넘어서고 변형시켜 시민성의 개념을 확장시켰다(Dobson, 2003: 88~89). Dobson은 생태시민성의 특성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공간적으로는 생태발자국을,

5) 박순열은 ‘citizenship’을 ‘시민권’이라고 번역하면 권리만을 과도하게 부각한다는 문제점을 들어 그냥 ‘시티즌십’으로 썼다(박순열, 2010a). 같은 문제의식에서 ‘citizenship’을 권리와 책임을 모두 포괄하는 ‘시민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김소영·남상준, 2012; 윤순진·심혜영, 2015). citizenship은 원래 ‘시민의 자격’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만, 한국에서의 ‘시민’은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여 자유와 주체성을 획득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김동춘, 2013)이라는 의미도 가짐을 고려해 이 글에서는 ‘시민성’으로 옮기고자 한다.

시간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비영토성(비영역성)이다. 둘째는 권리보다 의무와 책임을 먼저 고려하는 비계약성이다. 셋째는 정의·동정·배려·연민 등의 덕성이며, 넷째는 소비 등 일상의 삶과 기후변화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넘나들음이다(Dobson, 2003). Dobson의 시민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환경 문제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해결 방법과 실행에서도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 세대와 국가, 인간 종이라는 경계를 넘어 생태적 책임의 시간적·공간적·종적 확장을 촉구한 것이다.

생태시민성을 좀 더 구체화시킨 ‘에너지시민성(energy citizenship)’ 개념도 있다.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서 시민들은 수동적 소비자나 수혜자지만, 대중들이 에너지 소비와 기후변화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에 주목해 책임감을 가지며 능동적으로 에너지체제의 혁신을 추구하고 행동할 때 에너지시민성이 발현된다(Devine-Wright, 2007). Devine-Wright(2007)는 에너지시민성 개념을 내용적으로는 Schumacher의 대안기술과 작은 규모의 발전이라는 가치에서 가져왔지만, ‘시민성’은 Dobson의 생태시민성에서 분기되어왔음을 밝히고 있다. 전통적 시민성에서는 시민이 국가에 대해 계약관계를 가지고 책임보다는 권리를 강조하며 덕성을 강조하지 않는데 비해, 에너지시민성에서는 생태시민성과 마찬가지로 성찰과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성찰과 책임감은 다른 사회적·환경적 영역에서의 성찰과 책임감으로 연결된다. 현실적으로 에너지시민은 생태시민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태시민성, 환경시민성, 에너지시민성은 서로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이 글에서 생태시민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생태시민성이 이 세 가지 시민성 개념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며 가장 구체적으로 이론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시민성 발현으로 한정된 에너지시민성보다는 더 폭넓은 개념틀인 생태시민성을 차용하는 것이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어 생태시민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Dobson의 생태시민성이 기존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적 시민성 개념을 초월하는 후기세계시민주의(post-cosmopolitan)의 세계관을 차용하면서 ‘citizenship’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쓰는 것이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Hayward(2006)는 ‘citizenship’이 주권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정치적 개념인데, Dobson의 생태시민성은 정치체계를 초월해서 인류가 가지는 일반적이고 윤리적인 의무와 더 가까우며, 생태시민성이 의도하는 새로운 개념을 ‘citizenship’이라는 역사적이고 오래된 틀에 끼워 넣는 바람에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obson(2006)은 Hayward가 ‘정치적’이라는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생태발자국의 차이는 ‘정의’의 관점을 매개로 정치적 관계를 만들어내고, 시민들 간의 의무감을 ‘정치적’ 차원에서 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시민성의 영역은 법적 권리 주체로서의 ‘시민’을 넘어서서 공공체로서의 시민성, 공동체를 지향하는 ‘관계제’로서의 시민성, 사회정의와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하려는 민중투쟁으로서의 시민성으로 다양하고 폭넓게 확장된 상태다(김동춘, 2013). Dobson의 생태시민성 개념이 규범적이고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시민성’ 개념 자체가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기에 생태시민성 개념의 규범성만을 비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Hayward(2006)는 생태시민성의 개념적 혼란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Dobson의 생태시민성 개념에 따르면 ‘누가 생태시민인지’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생태발자국에 따른 의무감으로 생태시민을 규정한다면, 지구상에 생태발자국을 남기는 모든 사람이 생태시민이 되어야 하며, 생태발자국을 더 크게 남기는 가해자가 특히 생태시민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 피해자는 생태시민인가 아닌가? Hayward는 이러한 기준이 다분히 자의적이라고 비판한다.

Dobson(2006)은 Hayward의 비판에 대해 시민성에는 ‘자격(status)’과 ‘실천(practice)’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으며, 생태시민성은 실천으로서의

시민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Dobson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생태시민의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의무감은 생태적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발현되며, 생태시민성은 ‘특권’이라기보다 ‘되어야 하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생태시민은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생태시민은 생태적 부채의식과 역사적 책임감을 인식하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Dobson, 2006). 이처럼 Dobson의 생태시민성은 이론적인 엄밀성을 추구하기보다 현실의 문제에 대한 실천을 중시하는 규범적이고 변혁적인 개념이다. 누군가가 ‘생태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가시적인 근거는 그의 실천에 달려 있는 셈이다.

한국에서도 Dobson의 생태시민성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순열(2010b)은 한국인들의 환경과 개발 인식유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생태 영역을 뛰어넘어 생태시민성이 경제, 과학기술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시사하고 있다. 환경교육 분야에서는 생태시민성을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개념적으로 탐색하거나(김소영·남상준, 2012), 교육에서의 실천적 개념틀로 적용한 연구들이 있다(김병연, 2011; 김희경, 2012; 김희경·신지혜, 2012; 심광택, 2012; 김찬국, 2013). 이 글에서는 시민들이 초기에 에너지전환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와 과정, 참여하는 시민들의 내면 변화에 주목하면서 생태시민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세세하게 살피고자 한다. 생태시민성 개념을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가 설명하지 않은 채 비워둔 영역을 채우게 될 것이다.

### 3) 생태시민성에 대한 사회적 관점

Dobson의 생태시민성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사회적 관점’이다. Latta(2007)는 생태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개인 시민들의 친환경적 태도와 행동을 계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민주주의와 집단적 행동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태시민성 논의에서

민주주의적이고 집단적인 참여가 좀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시민성은 개인적인 행위에서보다 집단과의 상호작용이나 참여 속에서 더 발현되기 쉽다.

특히 시민성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집단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Kilgore(1999)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집단과 시민성 형성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집합적인 사회적 행동이 필연적으로 개인의 비판적인 성찰의 결과는 아니다 ..... 사회운동조직의 새로운 회원 대다수는 기존 회원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 우리는 친구를 좋아하고 그와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회적 행동의 비전에 동의하거나 그 비전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서도 집합적인 사회적 행동에 동참하게 된다.

Kilgore(1999)의 연구처럼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례는 오히려 일반적이다. 불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사례에 대한 공동체 학습 관점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망과 비슷한 ‘호의적인 관계망’이 확장되어 자발적 동조를 통한 ‘공명적 학습관계’가 형성된 사실이 드러났다(허준, 2012). 그래서 시민성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인맥이나 지인과 같은 요소가 중요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재생가능에너지 협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박진희(2015)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발기인들의 개인적인 인맥으로 조합원이 된 경우,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조합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투자금만을 지불하고 있는 조합원을 ‘에너지 시민’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2300명의 서울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조합원을 모두 ‘에너지시민준심’을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 시민’으로 명명하기가 어렵다.

박진희(2015)의 연구에서는 조합원들이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시민성을 드러내는 결과적인 ‘행위’는 했지만 아직까지 시민성의 핵심적인 동기와 의도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다른 생태시민들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보면 사회적 관계망과 집단적 참여가 오히려 시민성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드러난다. 생태시민들이 개별화되어 있을 때 사회적으로 집합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포착한 연구들이 있다. 생태시민성의 관점으로 ‘에코맘’을 연구한 김희경은 에코맘이 “생활 속 조용한 실천가이고 수동적인 소비자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회 운동화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점을 지적했다(김희경, 2012: 67). 에코맘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개별적인 에코맘들이 심지어 자기만족적이면서 친환경 제품을 과시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을 띠고 있음을 발견했다(서선영, 2010). 특히 서선영의 연구는 생태시민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개별화된 개인이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가족이기주의를 넘어서 사회적인 생태시민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생태시민성이 이론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개별적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집단 속에서 생태시민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현되는지를 살펴보는 사회적 관점이 필요하다.

#### 4) 생태시민성에 대한 학습적 관점

그렇다면 생태시민성은 어떻게 획득되는 것일까? Dobson은 생태시민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가치중립성을 띠는 자유주의적 학교교육에서도 교육과정의 일부로 생태시민성을 배치해 가르칠 수 있으며 생태시민성은 교실의 범위 안으로 제한할 때보다 ‘생생한 경험(lived experience)’을 통해서 더 잘 습득될 수 있다고 주장

한다(Dobson, 2003: 205). 그의 주장은 Crick(1999)의 시민성 학습에 대한 철학에 기반을 두는데, Crick은 능동적인 시민성은 강제적인 방식이나 지시적인 방식으로는 형성되지 않으며, 자유, 관용, 공평, 진실에 대한 존중, 합리성에 대한 존중 등 민주적인 선행조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시민성은 책으로만 배우기가 어려운데, 특히 환경과 관련한 시민성은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Bull et al., 2008).

Gough와 Scott(2006)은 환경시민성을 학습하는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 유형은 가장 전통적인 유형으로 환경 지식이 곧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식과 정보 습득에 힘을 쏟는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 비판이론과 연결된 것으로, 환경문제의 배후에 있는 사회적 진실에 눈을 뜨고 나서 시민성을 획득하고 집합적 행위(collective action)를 통해서 실천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접근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접근은 이미 설계된 행동으로 학습자들을 유도하고 조작하는 것이므로, 저자들은 본질적으로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첫 번째 유형과 관련해 다수의 연구들에서 환경정보와 지식의 획득이 반드시 환경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많은 환경단체는 여전히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면 사람들이 더 친환경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Kollmus & Agyeman, 2002).

이에 비해 세 번째 유형의 학습은 서로 경쟁적인 관점들이 함께 존재하는데 결말을 열어두면서 학습자의 선택을 중시한다. 저자들은 “학습은 시민성의 실천에 내재되어 있으며, 시민성은 내용뿐 아니라 학습의 실천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Gough & Scott, 2006: 266~267). 이들에 따르면 기존의 관점에서는 학습을 통해 시민성을 획득하게 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는 학습과 시민성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즉,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학습을 하면 시민성을 익힐 수 있고, 제대로 된 시민성에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성찰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1> 학습과 시민성에 대한 관점의 전환



자료: Gough & Scott, 2006에서 재구성.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미 결정된 생태시민성의 내용을 기초로 한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끊임없는 성찰과 성장을 통해 자기만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한 지역과 시대에 탁월한 해결책이 다른 지역과 시간대에서도 반드시 탁월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고정된 지식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학습자가 속한 사회와 문제의 맥락 속에서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변화해가는 것이 바로 생태세계와 사회와의 공진화(coevolution) 관점이다(Gough & Scott, 2006). 생태시민성의 내용이 가변적이고 열린 결말이 필요한 이유는 전통적 교육 상황의 전제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지식교육을 중시하는 전통적 관점에서는 특정한 환경적 지식이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전제하지만, 이 전제는 대중들에게서 권능감(empowerment)을 박탈해버린다(Clover, 2002). 이때의 ‘학습’은 ‘교육받는’ 것과는 다르다. 교사의 존재는 필수적이지 않으며, 학습자의 삶과의 관련성이 필요하고, 학습자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진화적인 학습의 구체적인 형태를 구상하려면,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상호간의 관계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상황 학습 관점이 필요하다(Nikel, 2008). 이때 상황학습의 핵심적인 요소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며, 학습자들은 단순히 개인 수준에서 지식을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의 일원으로 참여해 실천을 통해 학습한다(Lave & Wenger, 1991). 기존의 관점처럼 학습을 한 개인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종의 변화로만 간주한다면 학습이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한승희, 2006). 학습은 개인이 속한 조직공동체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환경문제를 개인의 일로 귀착시키고 환경학습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주요한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간과하게 된다(Clover, 2002). 따라서 생태시민성이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변적인 과정적 관점과 집합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을 동시에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연구방법과 연구현장 개관

#### 1) 사례 선정과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관악구에서 2년차 에너지자립마을로 활동하고 있는 ‘관악에코마을’을 연구현장으로 취해 질적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꿈마을에코바람(이하 꿈에바)’이라는 소모임을 이루고 있기에 꿈에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관악에코마을을 연구 현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 현장은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정책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초기에는 서울시나 시민단체, 환경운동가의 개입 없이 절전소 운동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내부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운동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평범한 지역주민들이 어떤 계기로 에너지자립마을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둘째는, 사례지 선정을 위해 몇몇 에너지자립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 과정에서 이 모임 구성원들의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상호작용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특성은 에너지 전환운동 조직이 어떻게 민주성을 형성해 가는지 실마리를 던져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참여 관찰을 위주로 면접 조사와 문헌 조사를 병행했다. 최근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되는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경향과 연구 참여자를 협력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곽영순, 2009). 이 연구에서도 연구자들 중 1인은 이 소모임의 구성원 자격을 획득했다. 참여관찰자들의 연구 유형은 연구 대상의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비참여부터 수동적 참여, 중간 수준 참여, 적극적 참여, 완전 참여까지 그 폭이 넓다(Spradley, 2006). 이 연구에서는 ‘적극적 참여’의 위치를 택했다. 적극적 참여자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직접 행하는데, 단순히 허용만 받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의 문화적 규칙을 더욱 충실하게 배우려 한다. 참여관찰자는 내부자(insider)면서 동시에 외부자(outsider)로서의 경험을 가지며, 내부자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외부자 관점에 기초한 대부분의 지식과는 종류가 다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Spradley, 2006).

연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다. 본격적인 연구는 이 기간에 진행했지만, 연구를 마무리한 이후에도 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2016년 7월까지 연구결과를 검토했다. 참여관찰은 매주 정기모임과 행사에 35회 정도 참여하며 진행했다. 주요 참여자들에 대한 공식 면접을 실시했고, 공식 면접과 녹음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일부 참여자들에게는 일상 대화를 자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비공식적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은 비구조화된 개방적인 면접법을 사용해 공감적이고 감정이입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지자료는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과 홈페이지를 조사했고 경제적·정치적 맥락을 알기 위해서 가급적 폭넓게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했다. 자료수집 후에는 이를 전사해 반복적으로 읽고 의미를 추출해내는 개방코딩을 실시했으며, 이후 다시 분석하고 해석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9개월간 지속적으로 참여관찰을 진행했으며, 타당성 검증을 위해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거쳤다. 참여자 확인은 ‘신빙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법’으로, 연구자가 이해하고 분석한 내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 참여자들에게 확인을 받음으로써 참여자들 스스로

가 자신이 한 이야기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Lincoln & Guba, 1985).

## 2) 연구현장

연구 사례인 꿈에바가 속해 있는 관악주민연대라는 조직은 1995년 설립된 단체다. 재개발로 위협받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킬 민간 지역운동 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꿈에바는 2013년 관악주민연대의 활동가인 김현숙(가명) 주도로 처음 모임을 시작했다. 이 모임은 절전소 운동을 시작으로 2013년과 2014년에는 서울시 에너지절약 실천사업에 공모해 활동했고, 2015년 4월부터는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되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꿈에바 회원은 적극적 참여자로 활동한 연구자를 포함해 15명이다. 이들 중 실제로 활동을 이끌어가는 구성원들은 9명이며, 이들이 이 연구의 주된 참여자들이다. <표 1>에 주참여자들의 집중적 활동기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활동을 시작한 기간만 표시되어 있고 활동을 마무리한 기간이 없는 것은 연구 그들이 당시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구성원들(5명의 부참여자)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이 있었으나, 일정 기간 이후에는 거주지 이전, 건강 악화, 취업 등의 이유로 연구 당시에 정기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집중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까지도(2015년 12월) 인현고등학교 햇빛발전협동조합에 전원이 모두 출자금을 내는 등, 활동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부참여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과거에 소식지 등에 남긴 기록들과 행사 참여시 오간 대화 등을 자료화했다. 꿈에바 회원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지원하고 있는 관악주민연대 활동가 중 1인을 면접함으로써 모임 외부자의 관점도 얻을 수 있었다.

꿈에바가 상시적으로 하는 활동들에는 에너지 진단, 에코마일리지 가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

	참여자*	성별	나이	집중적 활동기간		참여자*	성별	나이	집중적 활동기간
주 참 여 자	김현숙	여	50대	3/2013 ~	부 참 여 자	황선주	여	30대	3/2013~5/2015
	박미선	여	40대	3/2013 ~		윤영희	여	40대	3/2013~12/2014
	권애순	여	50대	3/2013 ~		이현지	여	40대	5/2013~11/2014
	박혜은	여	50대	3/2013 ~		강지연	여	30대	5/2013~10/2014
	정미연	여	40대	5/2013 ~		양은경	여	30대	6/2015~9/2015
	김연수	여	40대	4/2015 ~	비 회 원	고철수	남	40대	관악주민연대 활동가
	서은영	여	40대	4/2015 ~					
	안종철	남	40대	7/2015 ~					
	김정은	여	30대	9/2015 ~					

\* 참여자 성명은 모두 가명 사용

입 운동, 절전소 운동, 불끄기 운동이 있다. 매달 22일 불끄기 운동에는 절전소에 참여하는 가구들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절전소 운동에 참여하는 가구들은 단체 SNS를 이용해 집에서 전등을 끄고 촛불을 켜 인증 사진을 올려 콘테스트를 하고 매달 높은 비율로 전기를 아낀 절전왕을 뽑아 간단한 선물을 준다. 1년에 2~3회는 음악회나 공연 등을 곁들여 다함께 모이는 특별한 불끄기 행사를 한다.

꿈에바 활동의 또 다른 큰 축은 교육활동인데, 구성원들의 자체 학습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강좌와, 꿈에바가 주체가 되어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으로 나뉜다. 에너지 강좌는 관악주민연대 활동가들과 일반 주민들까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공개로 진행되고, 구성원들의 자체 학습과 함께 새로운 회원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인근 학교 어린이,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은 점차 수요가 늘고 있어 최근(2016년 3월)에는 고등학교 환경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1년간의 장기적인 교육활동도 시작했다.

#### 4. 꿈마을에코바람 구성원들의 참여 동기와 변화과정

##### 1) 시작과 참여 동기: 탈핵, 지역 운동, 지인의 권유, 재미

꿈에바의 모임 시작 동기를 두 개의 열쇳말로 정리하면 ‘기후변화’와 ‘탈핵’이다. 모임의 목적과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자료에 “지구온난화 방지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삶의 현장인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실천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sup>6)</sup> 이들이 탈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며 둘째는 밀양 송전탑으로 사태로 발생한 농촌 어르신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이 모임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구성원인 박미선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박미선: 저희 꿈에바가 만들어진 것은, 2011년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3년 에너지 교육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상 기온, 그리고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 또 원자력 발전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기수)가 세계 5위라고 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도시로 내보내려면 송전탑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농촌 어르신이 고통 받고 계세요. 그래서 서울시민이 에너지를 절약하면 더 이상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sup>7)</sup>

그런데 모임 전체의 시작 동기와 별도로 구성원 각자의 시작 동기는 조금씩 다르다. 대표인 김현숙에게는 지역 공동체 복원의 수단으로서 절전소 운동의 의미가 컸던 데 비해,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사회적 관계망

6) 관악주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pska21.or.kr/>

7) Gfm 관악FM 100.3MHz <http://www.radiogfm.net/> 2015년 4월 2일 ‘라디오로맨스’ 방송.

과 지인의 권유가 가장 중요한 참여 동기였다. 에너지 강좌와 재미, 환경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 모임에서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좋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이미지도 영향을 미쳤다.

먼저 대표인 김현숙에게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의 주된 목적은 에너지 활동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날 마을 공동체 복원이었다. 그는 지역운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매너리즘을 느끼고 새로운 주제를 찾던 와중에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다른 마을을 견학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그 마을은 에너지자립마을이었고, 김현숙은 도서관보다도 그 마을의 절전소 운동에 더 주목하고 지역운동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관악주민연대가 주로 활동하는 관악구 지역은 경제적으로 그리 여유 있는 지역이 아니며, 임대아파트 등 에너지 빈곤층에서는 에너지 절약 효과는 그리 크지 않지만 절전소 운동을 통해 다른 정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

김현숙: 저는 환경이나 생태,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2013년 1월에 성대골 도서관 탐방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절전소를 본거죠.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게 지역 활동의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에너지 절약은 임대아파트에서는 어려워요. 이미 아껴 쓰고 있고 더 줄일 게 없거든요. ○○아파트는 공부방도 없고 부녀회도 없어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화합도 안 되죠. 자기들이 가난해서 무시당한다는 피해의식도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 균열을 내고 싶었어요. 축제도 하고 불끄기도 하고 자전거 발전기로 솜사탕도 만들어 먹고…… 뭐 그런 분위기를 지역에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는가 하면 김현숙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 모임에 처음 가입하게 된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계기는 ‘지인의 권유’였다.

박미선: 우리 딸이랑 현숙 언니 딸이 친구였어요. 언니가 전기 줄이는 거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그때 우리집 전기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보죠. 뭐’ 그랬어요. 원자력발전소가 어땡고, 환경이 어땡고 이런 얘기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죠. 진짜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정미연: 우연히 시작했어요. 관악주민연대에서 에너지 교육을 들었는데, (아이의) 같은 학교 엄마들이 같이 하자고 했어요. 에너지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 모임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고 나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구성원들도 대부분 학부모 모임이나 관악주민연대 도서관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의 권유에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일인 것 같아서” 함께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 가입한 회원들 중에는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에너지 강좌를 듣고 눈여겨보고 있다가, 하고 싶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하게 된 경우도 소수 있었다.

구성원들의 가입 동기이자 활동 동력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재미’다. 절전소 활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다. 음악회, 동영상 만들기, 연극과 공연, 전깃불 끄고 촛불 켜기, 사진 콘테스트, 폐유로 비누 만들어 팔기, 나눔 장터, 축제, 자전거 발전기 돌려 솜사탕 만들기 등 놀이와 그다지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여러 행사들이 참가자들에게 재미를 안겨준다. 이들이 느끼는 ‘재미’는 여러 층위의 감정과 느낌을 통틀어 포함한다. 거기에는 새로운 경험, 자신감이나 성취감 등 성장의 요소와 구분되지 않는 재미도 들어있다. 이들이 ‘재미’라고 말하는 여러 층위의 느낌을 상황에 따라 정리해보면 <표 2>와 같다.

특히 절전소 운동을 통해 생활방식과 일상이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구성원들에게 성취감을 주었고, 그런 성취감 덕분에 이들은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매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도 즐겁다. 이들은

&lt;표 2&gt; 꿈에바 구성원들의 재미의 층위와 상황

재미의 층위	구체적 상황
새로움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거리 캠페인이나 에너지절약실천 동영상 만들기
신기함	태양광 핸드폰 충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그것으로 핸드폰이 충전되는 것을 확인할 때
뿌듯함	동영상을 만들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았을 때
성취감	절대 바꾸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생활습관을 바꾸었을 때
자랑스러움	꿈에바가 활동을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 때
자신감	나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연대감	함께 간 식당이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한 목소리로 에어컨 꺼달라고 외칠 때

자녀의 나이대가 비슷하고 에너지 활동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소소하게 공유할 거리가 많았다. 회의는 수다와 거의 구분되지 않으며, 회의를 하다가도 곧잘 길길로 새거나 유머와 농담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재미가 구성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옆에서 보기에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활동’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기웃거리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 2) 변화, 혹은 성장: 시민성 형성의 과정

꿈에바 구성원들이 활동에서 재미만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통적인 방식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구성원들이 그다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이 활동의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 더 큰 어려움은 학습과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구성원 중 일부는 공부하는 것을 싫어했다. 김연수는 “활동은 재미있고 몸 쓰는 건 잘하지만, 글 쓰고 머리 쓰는 게 어려워서” 이 모임에 가입하기가 꺼려졌다고 말했다. 정미연은 “책 읽는 것은 좋지만 공부하는 것은 싫다”라고 말한다. 구성원 대부분이 그야말로 ‘평범한 동네 아줌마’들이다. 이들

중 몇몇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싫고 어려운 것이며, 학교도 졸업했는데 그 싫은 공부를 왜 다시 하나는 인식마저 깔려 있었다. 구성원들이 느끼는 학습에 대한 부담감은, 이들이 활동하는 에너지라는 분야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과 함께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초창기 부터 줄곧 활동해왔던 구성원들도 전문성이 부족해서 자신감이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게다가 최근에 인근 학교에서 에너지 교육에 대한 의뢰가 늘어나서 꿈에바 구성원들은 직접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시작했다. 구성원들은 스스로 공부하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아직은 앞에 나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만큼의 실력이나 자신감이 없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모임 구성원들이 넘어야 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3년간의 활동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이 삶을 보는 방식과 생활방식에서의 변화였다. 이들은 에너지 문제를 자기 삶의 중심에 놓기 시작했고, 생활에서는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으로 변화했다.

강지연: 남편이랑 자동차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자동차 사는 것을 포기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명절에 시골이라도 가려면 아주 힘들죠 그런데 왜 나는 자동차를 포기했을까…… 22일 촛불을 켜는 시간은, 불이 꺼져서 불편한 것보다 아이들과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전기를 줄이려고 애쓰다보니, 음식쓰레기도 눈에 들어왔어요 음식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단순한 조리법을 선택하게 되고, 단순한 조리법은 곧 건강한 조리법이더라고요. 건강도 챙기고 기분도 좋았어요 조금 오래 걸리고 손이 더 가지만, 천천히 느리게 가는 생활은 마음에 여유를 주었어요.

권애순: 이는 사람이 건조기 돌려서 (음식을) 말려 먹는 거야. 내가 미쳤다

고 했어. 전기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거(꿈에바 활동) 하고  
부터는 전기 많이 쓰는 사람 보면 다 미친 것 같아…… 그거는 사  
치야, 사치!

박미선: 맞아, 없어도 되는데 굳이 그런 걸……

박혜은: 전에는 가전제품 살 때 디자인을 먼저 보고 기능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디자인 기능 다 필요 없고, 에너지효율등급만 봐요.

서은영: 난 아예 안 사(옆에서 폭소 터짐)

이들의 말에서 전반적인 관점의 변화, 다소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즐거움을 찾는 모습,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자  
신의 생활습관을 바꾸어냈을 때의 성취감 등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강  
지연의 경우는 에너지 문제에서 환경문제 일반으로 친환경행동의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가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나  
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는데, 전기 사용을 중심으로 ‘필요(needs)’와  
‘욕구(wants)’를 구분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또한 이들의 변화는 생태시민성에서 말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넘나들’을 특징으로 한다. 이들은 개인의 소비가 지구에 미치는 영  
향을 인식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게 되었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넘  
나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행사는 매달 진행되는 ‘지구를 위한 불끄기’다.  
각자 집에서 불끄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단체 SNS에 올린다. 개  
인의 사적 영역인 집이라는 공간이 절전소 활동 영역으로 전면에 등장하  
게 된다.

모임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변화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경제적 동  
기에서 일어난 환경적·사회적 동기로의 확장과 의미의 발견이다. 모임을  
처음 만들었던 김현숙은 애초에 환경과 생태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의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특히 김현숙은 절전소 운동  
에서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시민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찾게 되었고, 지역

운동에 기후변화와 탈핵의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런 경제주의에 대한 경계는 다른 구성원에게까지 파급되어 동의를 얻고 있었다.

김현숙: 절전소 운동이 단순히 정부의 전기절약 시책을 도와주고 홍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들었죠 저도 그런 회의를 가졌고요 그러다가 공부도 하고 강연도 듣고 이제는 이것이 의미 있는 활동이구나, 탈핵운동,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운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30분 불끄기는 단순히 전기 몇 kWh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할 때 당당히 원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박혜은: 처음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전기세 절약이나 절전왕 상품 같은 게 많이 도움이 돼요. 하지만 계속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에너지자립마을에서는 절전왕 상품을 놓고 경쟁을 시킨다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도 점차 의미를 찾게 되니까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김현숙이 절전소 운동이 경제주의라는 회의에 직면하고 의미 찾기를 하던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에 그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밀양 송전탑에 반대하던 어르신들의 투쟁과 분신자살이었다. 사회적 약자인 밀양 어르신들과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은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의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김현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밀양송전탑-기후변화’라는 사회·환경 문제가 바로 이 절전소 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절전소 운동이 탈핵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의 첫걸음이라는 확신이 더해지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모임 구성원들의 변화에 있어서의 핵심은 ‘시민성의 형성’이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고 지역운동을 오래 해왔던 김현숙을 제외하고 다른

구성원들은 이전에 시민운동이나 정치적인 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략적으로 초기에는 재미와 성취감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경제적 동기가 약간의 유인책으로 작용하다가, 이후에 사회적 의미를 발견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구성원들은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참여하다가 점점 활동의 주체로 성장해나가며 ‘밀양 어르신들 응원을 위한 릴레이 단식’ 등을 주도하고 이후에 세월호 사건과 같은 다른 사회문제에도 눈을 돌리기도 하며 시민운동 차원의 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다.

김현숙: 사람들이 변했어요. 사회활동에 별 관심이 없던 엄마들이 이제는 세월호 현수막을 걸 때도 혼자 돈 내는 것이 아니라 애들까지 용돈을 털어 같이 내게 했어요.

물론 현재 꿈에바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활동에서 사회적 의미를 발견하고 사회운동 영역으로까지 활동을 확장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인에 따라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개인적 관심에서 사회적 관심으로, 경제적 동기에서 환경적 동기로, 외부적 동기에서 내부적 동기로 의미의 축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 5. 실제 사례로 본 생태시민성

그렇다면 꿈에바 구성원들은 ‘생태시민’인가? 그들을 생태시민성이라는 이론적 개념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꿈에바 구성원들을 생태시민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닌지는 생태시민성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경험적 사례 분석을 통해 생태시민성을 학습하는 데서 집합적인 사회적 관점과 열린 결말을 추구하는 학습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자 한다.

## 1) 사회적 관점

만약 꿈에바 구성원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이들이 전반적으로 에너지 시민성이나 생태시민성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들 대부분은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을 사회-기술체계의 연결고리 안에서 성찰하며 Devine-Wright의 정의대로 능동적으로 에너지체제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고, 경제적 여건상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소유하거나 투자할 형편도 아니다. 그리고 Dobson의 생태시민성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는 ‘배려나 공감과 같은 덕성,’<sup>8)</sup>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간의 넘나들’<sup>9)</sup>이라는 두 가지 특성은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비영토성’<sup>10)</sup>은 약하게 나타났고, ‘비인간 생물종에 대한 비계약적 의무와 책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생태시민성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시간과 공간의 범위에 제한되지 않은 생태적 의무”(Connelly, 2006)는 이 모임 구성원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으며, 다수의 구성원이 공간(마을공동체, 국가), 종(인간)의 경계를 넘어 생태적 책임을 확장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sup>11)</sup> 그래서 이 사례의 경우 구성원 개인을 각자 따로 보면 ‘생태시민’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꿈에바 구성원들은 초기에 강한 내면적 동기나 개인적 성찰의 과정이 없었으며, 지인의 권유와 개인적 인맥으로 에너지 실천 활동에 참여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생태시민이 아니라고 간단히

- 
- 8) 밀양 어르신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들의 전반적인 태도에서 배려와 공감의 요소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 9) 사적 영역인 일상생활에의 불끄기 운동과 절전 실천을 공적으로 연결시키는 양상은 이들의 활동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요소이다.
  - 10) 이 모임의 실천과 활동을 기후변화나 원자력 발전소와 강하게 연결시키는 태도는 일부 구성원들에게서만 나타났다.
  - 11)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성원들 다수가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다보니,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이 시간적 범위를 넘어선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는 인식은 강하게 갖고 있었으며,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국경을 넘는다는 인식도 큰 편이었다.

배제해버릴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이러한 지인의 권유나 인맥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은 시민성의 형성에서 중요한 초기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는 것이다. 꿈에바 구성원들에게는 이 활동의 비전과 의미에 동의하는 것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에너지자립마을 운동의 결정적인 참여 동기로 작용했다.

결국, 꿈에바 구성원 각자는 생태시민이라고 말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이들이 집단적으로 하는 활동은 소위 생태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 양상과 일치한다. 이 사례에서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관악주민연대라는 조직에 주목해볼 수 있다. 관악주민연대의 다양한 문화모임과 강좌, 정치 활동, 도서관이라는 상시적인 공간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때 사회적 관계망 확대는 단순히 지인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연대의 깊이와 폭을 넓혀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꿈에바 구성원들은 이러한 관계망 안에서 참여와 실천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을 획득했고, 사회적 행위자로서 활동의 폭을 넓혀갈 수 있었다.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표인 김현숙도 개인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생태시민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그 역시 “혼자라면 못했을 것”이라며 모임 구성원들의 집단적 뒷받침이 지금과 같은 수준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주요한 요인이라 말했다.

결론적으로 생태시민성은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행위를 통해 구현되면서 오래 유지되고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역량이라는 점이다. 상호성과 관계성을 상실한 생태시민성은 박제화되거나 관념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 세계에서 전환운동은 높은 기준의 생태시민성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례에서처럼 개인적으로는 생태시민성의 기준을 다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생태시민성을 집단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 수준의 생태시민성은 점점 더 강화되고 심화될 수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에너지 전환운동에서 촘촘하고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망과 집단적 정체

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환마을 운동과 에너지자립마을 운동은 지역사회 또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생태시민성의 실현에서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집단적 정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학습적 관점

생태시민성을 고정된 덕성이나 품성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연구 사례에서 포착한 구성원들의 상황은 생태시민성이라는 지향을 향해 첫 걸음을 떼고 나아가는 과정, 혹은 생태시민성이 품고 있는 폭넓은 스펙트럼 중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생태시민성이 고정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보다 그 자체로 지속적인 성장과 학습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생태시민성이 제시하는 높은 수준의 덕성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에너지 절약의 사회적 의미를 깨우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 있는 주민들은 충분히 생태시민의 범주로 포함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꿈에바 구성원들에게는 강좌나 교육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학습이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이들이 지식주입식 교육 방식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강좌와 같은 비형식 교육과정보다 일상적인 대화와 SNS를 통한 소통, 회의와 같은 무형식 학습 공간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으며, 이들에게 학습이 일어난 배경에는 보람과 성취감을 포함한 다양한 층위에서 작동하는 재미라는 요소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꿈에바 구성원들이 실행공동체 안에서 점진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시민성을 형성해나가고 있음은 구성원들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숙: 실천거리를 통해 사람들이 뿌듯함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해야, 자

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자기 위치를 찾습니다. 말로만 할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활동을 하면서 확실히 구별이 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이현지: 나의 조그만 변화가 공동체에서 변화를 불러올 수 있고, 서울시 사업으로 이어지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나로부터의 작은 변화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맛보게 되었어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작은 실천 하나가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이현지가 언급한 것처럼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실천으로 인한 작은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통제감(locus of control)과 권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들은 소소해 보이는 일상의 활동으로 인해 삶 전체가 변화하는 경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했으며, 이 경험은 다시 에너지자립마을 운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켜주었고, 이후에 사회적 의미로 확장되면서 시민성 형성의 단초가 되었다.

연구 사례에서의 이러한 통제감의 향상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렵고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Giddens (2009: 11)는 “지구온난화의 위험이 가시적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기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위험이 다가와도 대부분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뿐, 자신의 생활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려하지 않는다”라는 ‘기든스의 역설(Giddens’s paradox)’을 주장했다. 이 연구 사례에서 모임 구성원들에게서는 기후변화의 위험으로 인한 생태공포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실천을 통해 학습하고 자신의 생활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냄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집단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역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며 실천과 변화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통제감과 권능감을 높인다면, 기든스의 역설을 벗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 사례가 된다.

이상으로 이 연구 사례에서 드러난 생태시민성을 통해 볼 때, 생태시민성이란 고정되어 있거나 어떤 한 개인 수준의 닫힌 자질이라기보다는, 매우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실 속에서 내용과 형식이 변화될 뿐 아니라, 한 개인이 가지는 다층적인 사회적 관계와 맥락이 있을 때 특정한 사회적 관계와 맥락 속에서 학습과 실천을 통해 발현될 수 있는 자질로 이해할 수 있다.

## 6. 맺는 말

에너지자립마을의 성패가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주체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그들의 일상에 이 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은 운동의 확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에너지전환운동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와 계기, 내면의 변화, 활동 양상을 기록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경험적 연구는 이 운동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이전의 에너지전환마을 연구나 생태시민성 연구에서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학력과 교육수준이 높고 중간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Seyfang, 2009; Bay, 2013; 김희경, 2011). 이들은 전통적인 관점의 학습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이미 어느 정도의 환경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전환운동에 뛰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사례에서 만난 구성원들은 주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공부를 싫어하는 동네 아줌마’들이다. 그들은 환경·생태 의식이나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참여했다. 이들의 성장과 변화는 평범한 대중의 환경의식 성장의 맹아 단계를 보여주고 있기에, 참여자들의 이러한 특성은 전환운동의 대중적 확산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또한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학습이 생태시민성을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측면에만 관심을 두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생태

시민성의 획득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음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생태시민성의 형성은 개인 수준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과 집단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적인 관점에서 과정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도 발견했다.

이 연구에서는 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꿈에바는 관악주민연대라는 역사 깊은 주민운동 조직의 든든한 뒷받침으로 성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다른 에너지자립마을들이 처한 상황은 다양하기에 각각의 경우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후 이러한 단일사례연구가 축적된다면, 특유의 상황과 맥락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다른 사례를 비교하는 다중사례연구를 통해 훨씬 풍부한 상황과 의미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 사례에서는 전환운동 조직 구성원들의 초창기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이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진화해나갈지는 미지수다. 역사가 더 오래된 전환운동 조직이나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시간 축을 따라 심도 있게 연구한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생태시민성이라는 이론적 관점을 채택했는데, 시민성 형성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장과 에너지체제의 변화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국가들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일반대중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지에 대한 ‘수용성(acceptability)’ 정도를 보며 친환경 행동과 시민성을 논하지만(Devine-Wright, 2007; Steg et al., 2015), 한국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를 비롯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행보가 오히려 주목을 받을 정도로, 중앙 정부는 다른 정책적 지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에너지전환을 추구하는 시민성은 그 정도나 적극성에서 다른 양상을 띠 수밖에 없으며, 생태시민성에 대한 관점과 해석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생태시민성은 현실 속에서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재개념화되어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자립마을 등 전환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주체에 대한 미시적 연구가 좀 더 활발하고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전환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찰하고 학습하고 성장하며 얼마나 자유롭게 행복한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운동 조직이 지속가능하게 확산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에너지전환운동의 역사가 길지 않기에 에너지전환마을 또는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연구도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앞으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사례들 간 비교 연구나 한 사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 연구가 진행된다면 에너지전환운동에 대한 더욱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원고접수일: 2016년 11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11일

최종원고접수일: 2016년 12월 15일

❖ Abstract

Learning of Ecological Citizenship through the Process of Energy  
Transition Movements: Based on a Qualitative Case Study on an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in Gwanak-gu, Seoul

Cho, Mi Seong and Yun, Sun-Jin

The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ESSV) movement, which relies heavily on voluntary resident participation, is a loc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he energy crisis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y participants get involved in the ESSV movement and how they have changed and grown through their ESSV experience, and to understand these findings from an ‘ecological citizenship’ perspective. We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using primarily participant observation of Gwanak District’s ESSV, using both interviews and a literature survey. Many respondents reported initially getting involved in the ESSV movement due to recommendations from social contacts or for leisure. However, participants then attached social meaning to their ESSV activities and cultivated ecological citizenship. ESSV participants’ experiences with citizenship development reveal a departure from conventional classroom learning and instead demonstrate a type of social learning cultivated through participation and practice. We found that, while individually, members did not have high levels of ecological citizenship, collective activities among members seemed to reveal stronger ecological citizenship. This implies that rather than approaching the concept of ecological citizenship through an individual perspective, we must approach ecological citizenship from collective and procedural perspectiv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 which reveal behavioral and attitudinal changes experienced by adult participants with average levels of education and environmental awareness — can inform strategies for expanding energy transition movements to reach the greater public.

Keywords: Ecological citizenship, Energy transition,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Negawatt movements, Social learning, Community of practice

## 참고문헌

- 곽영순. 2009. 『질적연구: 철학과 예술 그리고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구도완. 2012. 「특집: 생태와 녹색평화—사상, 문학, 운동 생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 반핵운동」. 《통일과 평화》 4 (2), 57~86쪽.
- 김동춘. 2013. 「시민권과 시민성」. 《서강인문논총》 37, 5~46쪽.
- 김병연. 2011. 「생태 시민성 논의의 지리와 환경 교육적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221~234쪽.
- 김소영·남상준. 2012. 「생태시민성 개념의 탐색적 논의」. 《환경교육》 25(1), 105~116쪽.
- 김찬국. 2013. 「특집논문: 생태시민성 논의와 기후변화교육」. 《환경철학》 16(단일호), 35~60쪽.
- 김찬국·최도형. 2010. 「우리나라 기후 변화 교육의 방향에 관한 고찰」. 《환경교육》 23(1): 1~12쪽.
- 김희경. 2012. 「생태시민성 관점에서 본 에코맘과 교육적 함의」. 《시민교육연구》 44(4), 55~75쪽.
- 김희경·신지혜. 2012. 「생태시민성 관점에서의 환경교과 분석—고등학교 ‘환경과 녹색성장’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1), 125~141쪽.
- 박순열. 2010a. 「생태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 논의의 쟁점과 한국적 함의」. 《환경사회학연구 ECO》 14(1), 167~194쪽.
- \_\_\_\_\_. 2010b. 「한국 생태시민성(ecological citizenship) 인식유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환경사회학연구 ECO》 14(2), 7~52쪽.
- 박종문. 2015. 「도시 지역공동체 주민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과정: 서울시 성대골 에너지전환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문·윤순진. 2016. 「서울 성대골 사례를 통해 본 도시 지역공동체 에너지전환운동에서의 에너지시민성 형성과정」. 《공간과 사회》 55, 79~138쪽.
- 박진희. 2015.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환경사회학연구ECO》 19(1), 173~211쪽.
- 서선영. 2010. 「한국 Eco-Mom(환경친화주부)의 정체성과 그린생활의 의미 분석」. 《소비문화연구》 13, 123~139쪽.
- 심광택. 2012. 「지속가능한 사회와 목표 설정: 생태적 다중시민성」. 《사회과교육》 51(1), 91~107쪽.
- 윤순진. 2002. 「지속가능한 발전과 21세기 에너지정책」. 《한국행정학보》 36(3), 147~166쪽.

- \_\_\_\_\_. 2003.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개선방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1), 269~299쪽.
- 윤순진·김소연·정민지. 2011. 『한국과 일본 원자력 사회기술체계 발전 경로의 유사성과 차이성』. 《환경사회학연구 ECO》 15(2), 147~195쪽.
- 윤순진·심혜영. 2015.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51(단일호), 140~178쪽.
- 윤순진·이유진. 2008.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에너지 자립』. 『지속가능한 사회 이야기』 법문사.
- 이유진. 2010. 『주민이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정부 저탄소 녹색마을정책의 문제점』. 《씨오쟁이》 11, 59~68쪽.
- \_\_\_\_\_. 2014.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실험 분석』.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년 봄 학술대회, 118~144쪽.
- 이유진·진상현. 2015. 『에너지자립마을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정부·주민 주도형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3), 153~176쪽.
- 이필렬. 2003. 『중앙집중적 에너지 시스템의 기술적, 사회적 위험』. 《문화과학》 167~183쪽.
- 한승희. 2006. 『평생교육론: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 허 준. 2012. 『위기 변화 그리고 공동체학습』. 파주: 교육과학사.
- Bay, U. 2013. “Transition town initiatives promoting transformational community change in tackling peak oil and climate change challenges.” *Australian Social Work* 66(2), pp. 171~186.
- Bull, R., J. Petts, and J. Evans. 2008. “Social learning from public engagement: Dreaming the impossible?”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51(5).
- Crick, B. 1999. “The Presuppositions of Citizenship Educatio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3(3).
- Clover, D. 2002. “Traversing the gap: Concientización, educative-activism in environmental adult education.”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8(3), pp. 315~323.
- Connelly, J. 2006. “The virtues of environmental citizenship.” *Environmental citizenship*, pp. 49~73, Cambridge, MI: MIT Press.
- Devine-Wright, P. 2007. “Energy citizenship: psychological aspects of evolution in sustainable energy technologies.” *Governing technology for sustainability*.
- Dobson, A. 2003. *Citizenship and the environment*.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6. “Ecological citizenship: a defence.” *Environmental Politics* 15(03), pp. 447~

451.

- Geels, F. W. 2012. "A socio-technical analysis of low-carbon transitions: introducing the multi-level perspective into transport studies."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24, pp. 471~482.
- Giddens, A. 2009. 『기후변화의 정치학』. 홍익희 역. 서울: 에코리브르.
- Gough, S., and W. Scott. 2006. "Promoting environmental citizenship through learning: toward a theory of change." *Environmental citizenship*, pp. 263~285.
- Hayward, T. 2006. "Ecological citizenship: justice, rights and the virtue of resourcefulness." *Environmental politics* 15(03), pp. 435~446.
- Hopkins, R. 2008. *The transition handbook: from oil dependency to local resilience*. Green books Totnes.
- \_\_\_\_\_. 2010. "Localisation and resilience at the local level: the case of Transition Town Totnes(Devon, UK)." University of Plymouth.
- Hughes, T. P. 1987. "The evolution of large technological system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pp. 51~82.
- Kilgore, D. W. 1999. "Understanding learning in social movements: A theory of collective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8(3), pp. 191~202.
- Kollmuss, A., and J. Agyeman. 2002. "Mind the Gap: Why do people act environmentally and what are the barriers to pro-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8(3), pp. 239~260.
- Latta, P.A. 2007. "Locating democratic politics in ecological citizenship." *Environmental Politics* 16(3), pp. 377~393.
- Lave, J., and E. Wenger.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ncoln, Y. S., and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Vol. 75, Sage.
- Lovins, A. B. 1977. "Soft energy paths: Toward a durable peace."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San Francisco.
- \_\_\_\_\_. 1990. "The negawatt revolution." *Across the Board* 27(9), pp. 18~23.
- Nikel, J. 2008. *Differentiating and evaluating conceptions and examples of participation in environment-related learning*. Springer.
- Seyfang, G. 2009. *Green Shoots of Sustainability*. Permaculture.
- Seyfang, G., and A. Haxeltine. 2012. "Growing grassroots innovations: exploring the role of community-based initiatives in governing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Part C* 30(3), pp. 381.
- Sobel, D. 2007. "Climate change meets ecophobia." *Connect Magazine*, 21(2), pp. 14~21.

- Spradley, J. P. 2006. 『참여관찰법』 신재영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Steg, L., G. Perlaviciute, and E. van der Werff. 2015. "Understanding the human dimensions of a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 *Frontiers in psychology* 6.
- Walker, G., P. Devine-Wright, S. Hunter, H. High, and B. Evans. 2010. "Trust and community: Exploring the meanings, contexts and dynamics of community renewable energy." *Energy Policy* 38(6), pp. 2655~2663.